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7호 【루게 제25115호】 주체104 (2015)년 12월 3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양묘장을 현대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
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양묘장을 현대화
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
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용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
원회 부부장 조용원동
지, 국도환경보호상 김경
준동지, 국방위원회 설계
국장 마원춘동지가 동행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문과
양묘장의 일군들이 맞이
하시였다.

지난 5월 이곳 양묘장
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데 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
까지 크나큰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업적을 현실로 꽃피
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군님의 유훈관철
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
였으며 수심여중에 달하는 종자도 보내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해당
부문과 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은 수중



된 열의에 맞게 그들의
애국심을 더욱 분발시키
기 위한 교양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산림
복구전투에서 성과를
이룩하자면 양묘장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양묘
장은 단순히 나무모를
생산하여 보장하는 곳이
아니라 산림복구전투에
서 주공전선이나 같다고
하시면서 오늘 자신께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
장을 찾아온것은 이곳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완벽하게 실현
된 21세기 양묘장, 우리
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면시키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 좋은 나무종자들을 풍토순화시키고
경제적 및 관상적 가치가 큰 나무모생산을
늘어나가는 한편 야외재배장과 비닐박막
온실들을 새로 건설한것을 비롯하여 양묘
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
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묘목은
실, 원형삽목장, 야외재배장, 비닐박
막온실재배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
면서 양묘장의 관리운영정형을 료해
하신 다음 산림복구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산림복구
전투는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10년
앞을 내다보아야 하는 장기적인 사업인것
만큼 한두해 나무를 심어보고 성과가
눈에 띄이지 않는다고 하여 맥을 놓아
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시면서 오늘은
비록 고생하더라도 푸른 숲 우거진 조국
산천의 레일을 생각하며 한그루한그루의
나무를 정성다해 심고 가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가 실현되면 후대들이 그
덕을 단단히 보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후날 후대들은 나무심기를 국가적인
중대사, 전략적목표로 내세운 우리 당의
정책이 얼마나 정당하고 옳았는가를 푸르
리 설레이는 나무들을 보며 이야기할것이
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대와
사회의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떨쳐나선 찬만군민의 비등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은
지난날 낡은 지식과 방법으로 얻은 경험
을 가지고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과학기
술의 힘에 의거하여 전진하는 지식경제
시대라고 하시면서 122호양묘장을 나무
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 자동
화, 기계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세계
적인 양묘장으로 멋들어지게 꾸리자고
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양묘장을 현대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봄과 가을철에만 식수를 하던 종전의 방법에서 벗어나 땅의 의도대로 사철 나무를 심자고 해도 그렇고 나무의 사름물을 결정적으로 높이자고 해도 양묘장을 현대화, 과학화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종자 처리, 싹틔우기, 영양관리, 생태환경 보장, 병해충구제, 저장 등에 이르는 모든 나무보생산공정들을 고도로 현대화함으로써 122호양묘장을 적은 생산면적과 로력을 가지고 한해에 수천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는 토지 절약형, 로력절약형 양묘장으로 꾸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와 함께 나라의 산림과학을 선도할수 있는 중요한 과학기술보급거점,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양묘장이란 어떤것인가 하는 정확한 인식과 표상을 주는 양묘장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양묘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기치를 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계로부터 자재보장, 건설력량투입에 이르기까지 122호양묘장현대화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현지에서 직접 풀어주시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어 립제전을 벌려 122호양묘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 한 양묘장으로 보란듯이 전반기 김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선물로 드리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꼭 해야 할 만년대 계의 애국사업인 산림 복구전투의 성과를 위해 이렇게 일감을 스스로 찾아안으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보람이고 긍지이며 행복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양묘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이 지구가 6개월후면 전지개 벽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하시면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 투쟁함으로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또 하나의 귀중한 재

부를 창조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위업을 끝없이 빛내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자기 힘을 믿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

40t 짐합기중기를 자체의 힘으로 설계 제작한 남포항의 일군들과 기술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꾼들의 단을 따르고 움직이는 영웅적결집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하늘에는 우리 힘으로 제작한 비행기들이 날고 지하에는 우리 손으로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고 거대한 창조의 시대에 남포항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제작한 40t 짐합기중기가 큰 운을 내고 있다. 우리 나라 항만설비제작력사에서 이처럼 크고 현대적인 중기기를 만들어낸것은 정말 자랑할만 한 일이다.

우리의 힘, 우리 기술로 수입가격의 절반밖에 안되는 자급으로 제작한 중기기가 짐체같은 짐합들을 병풍처럼 들어올리면서부터 부두의 짐처리능력은 이전시

기에 비해 2배로 뛰어올랐다. 짐부림속도가 수입산 기종기에 비하여 1.2배에 달하며 주파수변환장치와 PLC조종계가 도입되어 무거운 짐들을 안전하면서도 원활하게 싣고부리고있다.

복수축 장판이다. 거대한 짐합기중기 부두가를 좌우로 오가며 수심마다 되는 앞팔과 뒤팔로 짐합들을 연속 부리는 평평을 보느라 우리 로동계급이 얼마나 장한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뭉클해진다.

누구나 해볼수 있다고 생각한 40t 짐합기중기가 큰 운을 내고 있다. 외국의 기술자들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머리를 저었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는 이 현대적인 기종기앞에서 입을 딱 벌리고 엄지손가락을 높이 들어보이고있다.

과연 그 어떤 힘을 지니었는지 우리 로동계급은 그렇듯 훌륭한 창조물을 시대의 기념비처럼 우뚝 세울수 있었는가.

이렇게 완성이되었다. 컴퓨터모의 시험만도 수백번, 간고했던 그날에 무슨 일인들 없었겠는가. 이나날 항의 기술집단은 제힘을 믿으면 강자가 되고 남을 쳐다보면 약자가 된다는 삶과 투쟁의 진리를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500장도 넘는 설계도면은 설계원들은 또다시 분발하였다. 100장의 도면들을 깨어 지워버리고 다시한번 마음의 랑개를 조인 그들은 그 누구의 방조도 받을수 없는 초경길로 한결을 완성을 전진해나갔다.

신념의 강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격전과도 같은 기종기제작 전투가 벌어졌다. 합성골조며 주동기, 주부머가 확보 못했었어 모두가 수심씩 나가는 덩치 가진 부분품들이었다.

어제날 16미터 기종기밖에 만들었지 못한 4.15기종기 혁신기술대원들로서는 아름다운 파제가 아닐수 없었다.

가공정밀도도 매우 높아 사소한 편차도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두꺼운 철판을 자르고 구멍도 뚫는것은 말할것 없고 그것을 나르는것부터가 문제였고 고정시키는것은 더욱 어려웠다.

하지만 전투원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돌격대 1소대장 최명식 동무를 비롯한 기능공들속에서 기발한 착상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왔다. 큰 두께에 얇고 작아진 지주장치가 수심기나, 창고고인안도 수심기나 나왔다. 그것만 보아도 이들의 자력생산, 간고분투의 열도가 얼마나 높았는가를 잘 알수 있다.

합성골조부용정전투가 벌어질 때였다. 좁은 공간안에 3명의 돌격대원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고열, 매캐한 열기, 움직이지도 힘든 비좁은 공간에서 여러명이 용접을 한다는것은 그야말로 상상하기 어려웠다.

4.15기종기혁신기술대원들

황해북도체신관리국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에게 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와 생활상편의를 보장하는것은 체신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황해북도체신관리국의 일군들이 더 밝고 생명한 텔레비전화면을 볼수 있게 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관리국의 일군들은 당의 목소리를 신속정확히 전달하는것이 자신들의 맡겨진 중요임무라는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 큰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하여 어느 한 초단과중계소와 전기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관리국일군들과 산하단위의 로동자들은 부단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난새들보다 발붙이지 못하는 칼벼랑과 같은 암반으로 되어있는 2km의 구간에서 심하게 절파와 함께 키높은 중계안테나도 새로 세웠다. 도당 위원회의 일군들이 이들의 사업을 힘껏 밀어주었다.

그러하여 현대적인 텔레비전방송중계로 사려깊이 꾸민 단이 아니라 봉산과 과과과 등 중계단에서도 보다 밝고 선명한 텔레비전화면을 볼수 있게 되었다.

관리국에서는 이미전부터 도의 모든 시, 군들은 물론 두메산골에 있는 단위에서도 선진화통신은 물론 화상통신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었다.

관리국에서는 수안군을 그 실현을 위한 본진으로 내세우고 사업조직을 짜고들어서 성과를 거두었다. 도의 모든 시, 군에서 이 사업을 힘있게 내민 결과 인민들의 생활상편의와 정보통신을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특파기자 김 천 일

체신의 현대화에 큰 힘을

관리국에서는 수안군을 그 실현을 위한 본진으로 내세우고 사업조직을 짜고들어서 성과를 거두었다. 도의 모든 시, 군에서 이 사업을 힘있게 내민 결과 인민들의 생활상편의와 정보통신을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특파기자 김 천 일

재해를 일으킨 강자, 남을 쳐다보면 약자

2년전 겨울이었다. 남포항항사의 어느 한 방에서는 짐합기중기문제를 놓고 밤잠도 못 이루는 회가 계속되고있었다.

수입하겠는가 아니면 자체로 만들겠는가.

두 길중 한길을 택해야 하는 심각한 형勢이었다. 수입에 매달리는 것은 빠르고 험한 길이었다. 하지만 협의에 참가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국가에 부담을 주게 될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수입병을 없애려는것은 당의 의욕입니다.》

《우리라고 그런 중기기를 못 만든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담하게 우리 손으로 만들어봅시다. 자력생성의 혁명정신으로

재해를 일으킨 강자, 남을 쳐다보면 약자

이렇게 전투는 시작되었다. 항설계들과 4.15기종기 혁신기술대원들을 위주로 한 전투력량이 기동전개도 항의 선진선동력량이 집중회의의 목소리를 높이 울리었다.

복해운성에서 자체를 실은 자동차들이 련속 도착하고 후방사업들은 맡은 일군들이 분주히 뛰어다녔다. 항에서는 《40t》이라는 말이 일군들과 중업원들의 입에서 떨어질줄 몰랐고 바로 이 《40t》에 모든 우산선이 부여되었다.

첫 전투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우지 않는 설계실에서 소문없이 벌어졌다. 참고할 견본도 자료도 없었고 기술지도도 받을 단위로 없었다. 오직 자기의 머리로 착상하고 우리 식으로 해내야 하였다. 피나는 사색의 낮과 밤이 흘렀다. 몇몇방에 안되는 설계원들모두가 입술이 부르르그 두는을 총출력했다. 그들은 기어이 제힘으로 짐합기중기를 제작하려는 불같은 열망을 안고 한창한 항의 도면을 그려나갔다.

고심어린 창조의 낮과 밤이 흘러 100장의 설계도면이 콤팩트화면에 현시되던 때였다. 도면을 검토하던 특별운성국장 김용일동무는 놀라운것을 발견하였다. 일부는 항의 구체적인 설계에 맞지 않았고 또 몇몇 장의 도면들에서는 새롭고 독특한 것을 찾아볼수 없었다.

자기의 피땀이 스민 소중한 창조물을 스스로 부정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직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체현화한 인간들만이 끊임없이 높은 목표를 제기하며 자기의 넓이 갖는 소중한 창조물도 혼연히 버릴수 있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최근 우리 주변에서 조선반도 비핵화와 6차회담재개와 관련한 구태의연한 주장들이 계속 되풀이되고있다.

세상이 다 알고있는바 같이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전쟁현황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데 대한 공명정대한 입장을 수차 천명하였다.

이제 대해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전에 먼저 비핵화를 중요한 전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아직도 사방을 돌아다니며 비핵화와 6차회담재개에 대해 떠들

도 해결될수 없다는것은 실천을 통해 여실히 증명된 진리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모든 문제의 발생근원이 확실히 적대적 정체의 종식이 확인되면 미국의 우려사항을 포함한 이여의 모든 문제들이 타결될수 있다.

평화협정체결의 실제적이며 책임있는 당사자인 조미가 마땅히 전제조건없이 마추어야 평화협정체결문제부터 논의하여야 한다.

미국은 오그랑수를 쓰지 말고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조미대화에 속히 참여하여야 할것이다.

주체104(2015)년 12월 2일 평 양

파도를 헤치던 처녀시절의 그 기백으로

사리원시 정방협동농장 제6작업반 5분초 선동원 원화연동무

농업정책관행으로 힘있게 추동했다.

농사치비전투가 한창이던 지난 1월초 어느날이었다. 일군들은 선동원들속에서 일손을 늘리던 원화연동무는 한 농장원이 자기가 맡은 포전에 대한 타박을 하는것을 보게 되었다.

포전에 거름을 그중 적게 낸 농장원이었다.

원화연동무는 그에게 견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러 자기와 포전을 서로 바꾸고 하였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선동원의 포전에 이미 큰 40t의 질 좋은 거름을 낸 상태였다.

낮에는 낮대로 일하고 밤이면 남편과 함께 추위를 무릅쓰고 사리원시내중심까지 왕복수리길에 오가며 갈기주에서 날라들이는 거름이었다. 이제 또 어디서 그만큼 거름을 장만하여 새 포전을 걸고싶었다. 이런 생각으로 선동원은 다들 말리라고 했다. 그러나 원화연동무는 결심을 달리하지 않았다.

《힘은 똬다 어디 쓰겠어요. 이런 때 필요하진 않지요.》

선동원은 남편과 함께 그야말로 험거운 전투를 벌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밀려드는 피곤을 이기지 못해 견기름을 실은 갈기주에서 쪽잠에 들어오자 저절로 마를꿈에 들어서는 때도 있었다.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선동원의 포전에서 제일 많은 수확이였다. 그 농장원은 그대부터 자신을 누우치고 분발할 때의

원화연동무 (오른쪽에서 두번째)

농군이 펼쳐야!

그 견기를 농장원은 오늘도 잊을수 없는 실적으로 이어가고있다. 한때 농사일에 정을 붙이지 못하던 청년이 있었다. 어느 날 그를 만난 원화연동무는 라 일었다.

《이젠 나 이도 어지간한데 거 정도 이루어야지요. 농사를 잘 지어 고를엔 맞춤형 대상을 골라 잔치도 하 자요. 마음은 안락이 돼야 땅에 든든히 뿌리를 내릴수 있어요. 난 동무 를 믿어요!》

그 말에 울뜩음이 세기토 소 문단 청년의 눈가에 물기가 어 려졌다.

《고맙습니다. 선동원동무. 내 힘껏 일해보겠습니다.》

어느해 아들이 표창후가를 왔을 때 농장원은 선동원을 찾아와 고마운눈을 감추지 못 하며 말하였다.

《군복입은 아들인데 얼마나 멋있던지... 그간 선동원이 나 때문에 속도 많이 태웠지. 그 마음을 알아서라도 내 진짜배기길

원화연동무 (오른쪽에서 두번째)

원화연동무는 무순 일을 할 때 마다 앞에 붉은기를 꽂아놓고 하였다. 붉은기를 향해 자신이 선 참으로 달려나간다는 분조원들을 혁신과 위훈으로 힘있게 추 동하였다. 그것은 열, 백마디 말 보다 위력한 선동부조였다.

그는 또한 분조원들을 위해 사랑과 정을 깎고려 쏟아부었다. 그에게 있어서 분조원들은 친형제였다.

가장시정을 내세우면서 일에 열성을 덜 내던 한 농장원이 있었다.

원화연동무는 얼마 안되는 자기 집 식량을 주저없이 퍼내어 그에게 안겨주었다. 그와 매일 함께 출근하면서 일에 재미를 붙이도록 하였다.

그해 모내기전투가 끝난 후 그 농장원이 혁신자로 선발되어 시적인 촉하모임에 나서게 되었을 때에는 무대에 어색하게 나서도록 웃과 싹살도 새로 해결해주었다. 돌아왔을 때에는 혁신자축하모임무대에 나섰던 자랑스러운 모습을 사정없이 그 아이를 목마르는 인민군부대에 편지와 함께 보내주었다.

어느해 아들이 표창후가를 왔을 때 농장원은 선동원을 찾아와 고마운눈을 감추지 못 하며 말하였다.

《군복입은 아들인데 얼마나 멋있던지... 그간 선동원이 나 때문에 속도 많이 태웠지. 그 마음을 알아서라도 내 진짜배기길

과 중업원들이 국가과학원 과학자들과 합심하여 받아들인 실험성이 높은 성과이다.

이들은 물고기들의 생물학적 특성과 구조적인 어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범람관작업놀이에 따르는 때부러 및 바돌부레, 각종 바늘과 및 바돌부레에 의한 조종어로서표종을 결정하고 그 물장배정정을 위한 3차원물속작업상태도입방법을 내놓았다.

사람들이 물고기잡이에 이공과를 받아들인 결과 척당 물고기생산량은 1.5배이상으로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그물크기가 빠르고 물받이특성이 좋아져 물흐름세가 가장 클 때 나타나던 낚살범람상도 없었었다.

사업소에서는 이밖에도 무할개그물에 의한 초대형 90m의 통안강망의 설계와 도입, 어망자료와 물고기에 따르는 바다물염도, 온도, 물고기먹이상태 등을 리용한 어장탐색체계, 수자식어포탐색체계 등 물고기잡이에 이공과화실현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창안도입하여

평 원수산사업소에서

높아졌을뿐 아니라 그들의 대과 로적을 방치하지 않은 어구자재와 로적을 절약할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새 그들의 도입시험에 드는 값은 자체와 로력도 절 약할수 있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사업소에서는 물받이특성이 개선된 생산성이 높은 안강망부지그물의 설계를 과학화하는 성과도 이룩하였다.

사업소에서는 통그물과 짜네그물들을 부지그물로 원활하게 연결하는 방법과 단별코크기, 코크수, 합사수 그에 맞게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확립하여 부지그물설계의 과학화를 실현 하였다. 그들의 유도성과 물받이특성을 개선한 안강망부지그물들 75hp급이상의 고기배틀에서 리용되는 외용어구에 도입한 결과 2개월의 시험과정에 생산성이 1.2배이상으로 높아졌다.

또한 부지그물의 코크기가 큰

몇년전처럼 만 하여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수확들이 연이어 연구도입되어 현실에서 큰 운을 나타내고 이 사업에 기술자들만이 아니라 당, 행정일군들까지 적극 참가하여 누구나 새 기술창조의 주인으로 되고있다.

같은 어장과 어항조건속에서 도 물고기잡이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이들의 사업은 과학기술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나갈 때 당의 수산정책관행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중업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 쓰이는 경에는 현수년의 뜻을 높이 받들어 당 제7차대회를 보다 큰 물고기잡이성과로 빛내 이기 위하여 어로작업의 과학화 및 높은 단계에 끌어올릴데 대한 목표를 세우고 더욱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강 철 응

구바혁명무력절 59돐에 즈음하여

구바혁명무력절 59돐에 즈음하여 로만 오스발도 히메네스 오르메가 주조 구바공화국대사관 무관이 2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도광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 관계부서 일군들과 주조

구바혁명무력절 59돐에 즈음하여

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와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우리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멸사복무기풍이 안아온 흐뭇한 온실남새작황

부전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커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몇몇년 어느날이었다. 군당위원회 책임일군은 태양열온실건설과 관련한 문제를 놓고 일군들과 마주앉아 토론을 해보았다. 그런데 일부 일군들은 해발고도가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있는 군에서는 온실을 건설해놓아도 실을 보기 힘들다고 하면서 책임을 없애려하였다. 그것은 지난 시기 어려운 온실을 건설해보았지만 남새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거지나 그럭을

보지 못했기때문이었다. (남새가 귀한 우리 고장에서 남새문제를 풀지않고 남새시 당에서 하라는대로 온실남새농사를 성공시켜야 한다.)

이렇게 결심한 당책임일군은 먼저 시험적으로 고산지대에서 설치 태양열온실을 운영할수 있는것을 증명해보인 다음 온실 건설을 내밀기 시작했다.

다음날부터 책임일군은 군 새 기술보급소의 일군들과 해발고도가 높고 겨울이 긴 부전지방의 실정에 맞는 태양열온실을 건설하기 위한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했다. 그리고 그들이 평양의 전 부문에서 사도 온실남새농사를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것이 실천을 통하여 확증되었다.

책임일군은 군의 특성에 맞고 과학기술적으로 담보된 태양열 온실이 시범적으로 건설된데 맞게 군급기관, 협동농장일군들은 온실관리를 조직하였다. 일군들은 나무밭을 매지 않고도 부루, 오이 등 남새들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현실을 체념으로 보고 온실을 가지게 하였다.

군당위원회, 군인민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

멸사복무기풍이 안아온 흐뭇한 온실남새작황

한 군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일군들은 온실건설의 앞장에 섰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시범온실보다 규모가 큰 10여개 호동의 태양열온실이 일떠세워졌다.

군일군들이 온실건설에서 주목을 들었던것은 추운 지방의 특성에 맞게 온실열임업기풍을 더 온 지방에서처럼 처리하지 않고 살림집을 결어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니 열차단이 덜 잘 되고 살림집에서 부부온실관리자들이 생활하면서 온실을 편리하게 하니 좋았다. 그리고 해마다 난방과 취사용으로 불을 때면서 온실에도 2중벽으로 하였다. 밤에는 온실지붕에 보온단락을 특별히 잘 세우며 대소한 추위속에서도 온실을 운영해 보았다. 이 나날에 고산지대에서도 온실남새농사를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것이 실천을 통하여 확증되었다.

책임일군은 군의 특성에 맞고 과학기술적으로 담보된 태양열 온실이 시범적으로 건설된데 맞게 군급기관, 협동농장일군들은 온실관리를 조직하였다. 일군들은 나무밭을 매지 않고도 부루, 오이 등 남새들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현실을 체념으로 보고 온실을 가지게 하였다.

군당위원회, 군인민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



부전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어머니 우리 당을 우러러 러친 환호성—사회주의 만세!

뜻 깊은 올해에 새겨진 인민 사랑의 이야기를 더듬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자기의 붉은 기폭에 마치고 낫과 낫을 아로새긴 때로부터 인민과 한시도 떨어져본적이 없으며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혁명을 전진시켜왔습니다.》

추억 깊은 한해가 저물어간다. 온 나라 가정들에 따뜻한 정이 넘치고 귀여운 우리 어린이

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축복한다고 하시던 위대한 아버지의 친근한 웃음속에 밝아온 주제 104 (2015)년은 그 하루하루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인민도 체휼해보지 못한 전설같은 정과 사랑의 편속이였으며 당기발의 새한 펄럭임속에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게 울려 퍼진 끝없는 감격의 한해였다.

피해복구문제를 중요한제로 제일 먼저 토의하도록 하고 인민 군대가 전적으로 맡아 당장전기념일전으로 피해복구사업을 완결시켜달라는 최고사령관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또다시 태어난 복귀의 그 나날을 우리 어린이 잊을수 있으랴.

너무나도 엄청난 피해에 앞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던 라선시의 책임일군에게 전화를 걸어주시어 복구방향을 가르쳐주시고 이 이야기, 한지에 나앉은 인민들이 한시라도 추운새라 배고플새라 끓임없이 부여주신 그 사랑은 얼마나 눈물겨운것인가.

여기에 큰물이 휩쓰는 위험한 시각에 수심명의 우리 주민들이 자기 일어난 건물로 대피하도록 도와준 한 외국인의 이야기가 있다. 그때 집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안고나온것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라는것을 알게 된 그 외국인은 너무나 큰 충격과 감동을 받고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보다 정중히 모실수 있도록 자신의 성의를 밝혔다.

그 마음이 고마와 며칠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애정어린 물고기들을 받아안은 주민들이 그를 찾아왔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그 외국인은 감동을 접어 말했다.

《그렇게 희한한 물고기는 처음 봤습니다. 라선사람들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물고기를 맛보게 되었으니 나도 결국은 원수님의 사랑을 받아안은셈입니다.》

국적도, 살이온 제도도 다른 외국인의 마음까지도 통째로 울려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 사랑.

그 사랑의 힘은 라선땅에 전파되기를 기적들 낳았다.

불과 한달사이엔 1800여 세대의 살림집들이 멋들어진채 일떠서고 원래 살던 집보다 더 훌륭한 보금자리에서 라선시인민들은 당장전 일흔들을 맞이하였다.

인민이 겪는 불행은 최대의 고통으로 여기고 철부지아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결의 그늘도 천근만근의 짐으로 받아안으시는분이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그 몸이 아니었다면 사회의 버림을 받고 제일먼저 시들어버렸을 부모없는 아이들과 자신없는 늙은이를, 생활의 귀중했던

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만사상의 부러움속에 행복의 단상에 높이 올라 밝은 웃음짓는 내 나라.

하기에 설날 아침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긴 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이 제일먼저 선창을 메고 온 나라가 마음합쳐 부르고 부르는 노래 《세상에 부림없어라》는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의 주제가로 그리고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울려 퍼지는것이다.

에 새로 무은 통학배들이 상쾌한 물보라를 날리였다.

사회주의바다항기, 과일항기가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울려 넘치고 배두전역과 청천강기슭, 세로등판에서 눈부신 기적과 위훈이 태어나는 나날들이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땅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정은 정녕 천금주고도 살수 없는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라선시 이야기를 펼친다.

주제 104 (2015)년 10월 7일 수천리 먼길을 달려 두번째로 라선땅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장전 일흔을 경축행사에 참가한 라선시 책임일군들이 인민들을 새 집에 입사시킨 다음에 평양으로 올라가도록 하시였다.

하여 10월 10일이 눈앞에 막대한 그때 라선시 책임일군들이 선봉지주 주민들의 입사모임을 진행해 나가는데 수천리 먼 길을 떠나서 평양으로 떠나는 눈물겨운 평안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열반식숙단에 올라갈 할 인민 군대의 책임일군까지도 피혜적 역인들에게 살림질러용중사를 안겨주고 그들과 새집들이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수천리 먼 길을 달려 평양으로 온 이런 이야기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던 말인가.

인민에 대한 열사부부의 정신

을 목숨처럼 간직하지 않고서는 생각도 할수 없는 이런 희한한 이야기가 바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절에 태어났다는것은 얼마나 의미심장한것인가.

하나의 물방울이 우주가 비기듯이 알려지지 않은 이 하나의 사실속에서 우리 당의 인민적 성격을 불수 있는것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로 로동당만세를 목청껏 웨치며 10월의 경국광장으로 달려갔건만 우리 원수님께서서는 모든 승리, 모든 영광을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주시였다.

인민의 불같은 총성이 끊이지 않는 승리의 광장, 경국의 광장에 서고보니 우리 인민을 떠난 오늘의 이 자리를 어떻게 생각이나 할수 있으랴 하는 인민에 대한 고마움에 지금 이 시각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의 정겨운 눈빛들을 마주하게 된다고 사랑에 겨운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 인민은 울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 아니었다면 바람부는 한지엔 결코 전진의 찬화속에 허덕일만한 인민이었기에 당기목을 어머니의 옷자락처럼 부여잡고 원수님만을 따라온것이 아니었다.

그런 인민을 조선로동당의 들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로 값없이 내세워주시며 전체 조선로동당원들에게 인민을 위해 열사부부하라고 호소하시며

인민은 위대한 땅을 따라 변함없이 걸어갈 그 길에서 받아안게 될 모든 행복을 보았다.

노래에도 잊듯이 영원불멸할 그대와 함께 모든 영광 맞이하려는 신념과 의지가 역적으로 다져졌다.

그 신념과 의지를 안고 우리는 머지않아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

우리 당력사에 글문자로 아로 새겨질 조선로동당 제 7차 대회 가 기다리고있는 주제 105 (2016)년.

이해에 이룩하게 될 모든 승리가 우리의 눈앞에 보인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가는 혁명의 천만리길에서 오늘보다 더 거창하고 휘황찬란한 승리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있음을 인민은 심장으로 확신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애국, 애민의 헌신과 로고로 마련해주시는 매일, 어머니당이 열사부부의 정신으로 앞당겨오는 찬란한 때일을 안고 사는 인민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수령이 심장을 부르는 인민 만세의 거대한 울림과 인민의 전진당파 웨치는 로동당만세의 대어가 하나의 목소리를 더 높여 터져오르는 뜻깊은 해, 더욱이 바로 올해를 뒤돌아보는 민심의 총화이다.

글 본사기자 승철진
사진 본사기자 리충성

원수님께서서는 한결의 그늘도 없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우리가 혁명을 하는 이 땅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더 높고, 더 힘차게 울릴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속에는 상처입은 자식 일수록 더욱 마음속은 어머니의 울음처럼 젖어 담겨져있다.》

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을 자기의 붉은 기폭에 소중히 품어안아 온몸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당의 진보로써 여겨졌다.

그 모습은 웅장하고 다정한 사랑과 애에 떠날려 원산육아원과 애육원이 또 하나의 아이들의 온전으로 일떠서고 우리 당이 오래 동안 아껴온 명당자리에 합각지붕을 얹은 평양양로원인 민족의 향취를 풍기며 솟아올랐다.

뜻밖의 큰물로 재난을 당한 라선시인민들이 받아안은 사랑과 온정은 또 얼마나 컸던가.

돌이켜보면 자연재해보다 더 엄혹한 전쟁이라는 재난의 난파도가 시시각각 눈앞에 밀려들던 때였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실린 긴장한 5월밤, 5월밤이 흐르던 그때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아프게 안겨온 사람들이 바로 큰물피해로 한지에 나앉은 라선시인민들일것을.

언제나 당만 믿고 떠러온 인민, 그 누구의 동정도 지원도 없는 력사의 돌풍속에서 험이 되고 의지가 되어준 인민, 핵무기를 미친듯이 휘두르는 원수들이 감히 손을 하나 다치지 못하게 지켜온 그 인민이 뜻밖의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 혈육을 잃었다는것이 너무나 가슴아프시어 우리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국방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전략적문제들이 토의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군을

세상에 부림없어라

누구에게라함이 물어본다.

올해에 가장 큰 복을 받아안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고.

그러면 누구나 자신이라고 가슴에 당당히 대답할것이다.

새해 정초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진된 일터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은 원산주공중앙의 로동계급,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으로 변모된 장천남새전원동농장의 주인들, 사회주의문명의 본보기인 미려과학자거리의 보금자리를 편 교육자, 과학자들...

우리 원수님께서 안겨주시는 명포수메달을 받아안은 군인들이며 배두전역에서 위훈을 친 청년전원들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행복의 단상에 오른 사람들조차 부러워 바라보며 축복의 손을 저어준 행복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과연 누구였는가.

온 세상이 지켜보았다.

자신심과 정열이 넘친 격동적인 신년사로 세계를 놀래우신 우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 첫 현지지도도의 자욱을 어디에 찍으시겠다는가.

그 첫 자욱에서 새해에 우리 당이 제시할 모든 로선과 정책의 방향을 가능해보려는 호기심 같은 눈길들이 지켜보는 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새해 첫 현지지도도도가 전파를 타고 온 세상에 울려 퍼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신고 새해를 맞이하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시였다.

너무나 큰 충격에 놀라움에 앞서 눈물이 솟아치던 우리 원수님의 새해 첫 현지지도도, 《아버지—》 하며 원수님의 품에 뺨뚫이 안겨든 원아들의 모습을 보면 눈곱까지 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가.

원아들의 노래도 들려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함께 찍으신

원수님께서서는 한결의 그늘도 없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우리가 혁명을 하는 이 땅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더 높고, 더 힘차게 울릴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속에는 상처입은 자식 일수록 더욱 마음속은 어머니의 울음처럼 젖어 담겨져있다.》

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을 자기의 붉은 기폭에 소중히 품어안아 온몸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당의 진보로써 여겨졌다.

그 모습은 웅장하고 다정한 사랑과 애에 떠날려 원산육아원과 애육원이 또 하나의 아이들의 온전으로 일떠서고 우리 당이 오래 동안 아껴온 명당자리에 합각지붕을 얹은 평양양로원인 민족의 향취를 풍기며 솟아올랐다.

뜻밖의 큰물로 재난을 당한 라선시인민들이 받아안은 사랑과 온정은 또 얼마나 컸던가.

돌이켜보면 자연재해보다 더 엄혹한 전쟁이라는 재난의 난파도가 시시각각 눈앞에 밀려들던 때였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실린 긴장한 5월밤, 5월밤이 흐르던 그때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아프게 안겨온 사람들이 바로 큰물피해로 한지에 나앉은 라선시인민들일것을.

언제나 당만 믿고 떠러온 인민, 그 누구의 동정도 지원도 없는 력사의 돌풍속에서 험이 되고 의지가 되어준 인민, 핵무기를 미친듯이 휘두르는 원수들이 감히 손을 하나 다치지 못하게 지켜온 그 인민이 뜻밖의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 혈육을 잃었다는것이 너무나 가슴아프시어 우리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국방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전략적문제들이 토의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군을

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만사상의 부러움속에 행복의 단상에 높이 올라 밝은 웃음짓는 내 나라.

하기에 설날 아침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긴 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이 제일먼저 선창을 메고 온 나라가 마음합쳐 부르고 부르는 노래 《세상에 부림없어라》는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의 주제가로 그리고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울려 퍼지는것이다.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별사복무해 나아갑시다!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사변속에서 울려오는 한해와 더불어 마주오는 새해를 바라보는 심장마다에 넘쳐나는 환희, 그것은 더 좋은 때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만이 안고 사는 희망이다.

이제 또 어떤 행복이 차제되었는가고 기대하는것이 아니라 눈앞에 다가오고있는 행복을 마주가는 인민의 가슴속에 전세워진 우리의 희망이 결집되어 매아리치던 10월의 경국광장이 꽃을 추려오고 간직되어있다.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의 두리엔 일심단결된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

상상을 초월하는 격동의 순간이었다.

우리 당의 70년력사를 총화짓는 뜻깊은 연설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인민 만세를 위한 결집의 웨치기로 마치시켰던것이다.

세상에 들도 없는 연설이었다.

연설이라 하기 전에 사랑하는 인민과 행복을 더하고 나누는 심장의 대화였을 수없는 위대한 진심을 지고 가시발길을 헤쳐가자고 전세 로동당원들에게 하시는 절절한 부탁이었으며 세계앞에서 우리 인민의 영원무궁한 행복을 담보하시는 철성의 맹세였다.

온 한해 인민을 위한 열사부부의 길에 새기신 헌신의 자욱이 그대로 글밭이 되어 울려 퍼졌었다.

말 그대로 열사부부의 한해였다. 인민을 위해 그이께서는 이 한해 얼마나 고된 길을 걸으시였던가.

원산육아원, 애육원은 여러차례나 찾으신것과 미려과학자거리건설장은 하늘에서도 보시고 먼지날리는 건설현장에서 보시였다.

완공의 그날에 나와보시어도 되시지만 인민에게 안겨줄 재부여서 단 한결의 티라도 있을새라 자신께서 직접 나와보시고 지도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인민의 평양양로원건설장에서도 뵈었고 과학기술전당건설장에서도 눈물속에 맞이하였다.

뜻을 내, 마른날 가림이 없이 견고결연인 그 길은 천리만, 만리만. 그 길에서 얼마나 많은 인민사랑의 정물들이 태어났는가.

우리의 힘으로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지하전동차가 땅속을 달리게 되었으며 《무지개》호와 같은 현대적인 종합봉사선이 대동강에 등동실 났고 우리의 상품으로 가득찬 창창상점이 문을 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열원이 갖든 평양외국어공과대학이 이룩되도록 공과대학이 나라의 본보기공과대로 건설되었으며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가질수도 흉내낼수 없는 기념비적창조물도 변모되었다.

그이의 발걸음을 따라 북방의 대홍단으로 떠날 때 평양에서 온 이르기까지 온 나라 가는 곳마다에 현대적인 체육관이며 수영장이 인민의 기쁨속에 솟아올랐고 냉후호의 맑은 물결이

원수님께서서는 한결의 그늘도 없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우리가 혁명을 하는 이 땅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더 높고, 더 힘차게 울릴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속에는 상처입은 자식 일수록 더욱 마음속은 어머니의 울음처럼 젖어 담겨져있다.》

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을 자기의 붉은 기폭에 소중히 품어안아 온몸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당의 진보로써 여겨졌다.

그 모습은 웅장하고 다정한 사랑과 애에 떠날려 원산육아원과 애육원이 또 하나의 아이들의 온전으로 일떠서고 우리 당이 오래 동안 아껴온 명당자리에 합각지붕을 얹은 평양양로원인 민족의 향취를 풍기며 솟아올랐다.

뜻밖의 큰물로 재난을 당한 라선시인민들이 받아안은 사랑과 온정은 또 얼마나 컸던가.

돌이켜보면 자연재해보다 더 엄혹한 전쟁이라는 재난의 난파도가 시시각각 눈앞에 밀려들던 때였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실린 긴장한 5월밤, 5월밤이 흐르던 그때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아프게 안겨온 사람들이 바로 큰물피해로 한지에 나앉은 라선시인민들일것을.

언제나 당만 믿고 떠러온 인민, 그 누구의 동정도 지원도 없는 력사의 돌풍속에서 험이 되고 의지가 되어준 인민, 핵무기를 미친듯이 휘두르는 원수들이 감히 손을 하나 다치지 못하게 지켜온 그 인민이 뜻밖의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 혈육을 잃었다는것이 너무나 가슴아프시어 우리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국방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전략적문제들이 토의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군을

원수님께서서는 한결의 그늘도 없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우리가 혁명을 하는 이 땅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더 높고, 더 힘차게 울릴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속에는 상처입은 자식 일수록 더욱 마음속은 어머니의 울음처럼 젖어 담겨져있다.》

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을 자기의 붉은 기폭에 소중히 품어안아 온몸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당의 진보로써 여겨졌다.

그 모습은 웅장하고 다정한 사랑과 애에 떠날려 원산육아원과 애육원이 또 하나의 아이들의 온전으로 일떠서고 우리 당이 오래 동안 아껴온 명당자리에 합각지붕을 얹은 평양양로원인 민족의 향취를 풍기며 솟아올랐다.

뜻밖의 큰물로 재난을 당한 라선시인민들이 받아안은 사랑과 온정은 또 얼마나 컸던가.

돌이켜보면 자연재해보다 더 엄혹한 전쟁이라는 재난의 난파도가 시시각각 눈앞에 밀려들던 때였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실린 긴장한 5월밤, 5월밤이 흐르던 그때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아프게 안겨온 사람들이 바로 큰물피해로 한지에 나앉은 라선시인민들일것을.

언제나 당만 믿고 떠러온 인민, 그 누구의 동정도 지원도 없는 력사의 돌풍속에서 험이 되고 의지가 되어준 인민, 핵무기를 미친듯이 휘두르는 원수들이 감히 손을 하나 다치지 못하게 지켜온 그 인민이 뜻밖의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 혈육을 잃었다는것이 너무나 가슴아프시어 우리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국방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전략적문제들이 토의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군을

원수님께서서는 한결의 그늘도 없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우리가 혁명을 하는 이 땅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더 높고, 더 힘차게 울릴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속에는 상처입은 자식 일수록 더욱 마음속은 어머니의 울음처럼 젖어 담겨져있다.》

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을 자기의 붉은 기폭에 소중히 품어안아 온몸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당의 진보로써 여겨졌다.

그 모습은 웅장하고 다정한 사랑과 애에 떠날려 원산육아원과 애육원이 또 하나의 아이들의 온전으로 일떠서고 우리 당이 오래 동안 아껴온 명당자리에 합각지붕을 얹은 평양양로원인 민족의 향취를 풍기며 솟아올랐다.

뜻밖의 큰물로 재난을 당한 라선시인민들이 받아안은 사랑과 온정은 또 얼마나 컸던가.

돌이켜보면 자연재해보다 더 엄혹한 전쟁이라는 재난의 난파도가 시시각각 눈앞에 밀려들던 때였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실린 긴장한 5월밤, 5월밤이 흐르던 그때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아프게 안겨온 사람들이 바로 큰물피해로 한지에 나앉은 라선시인민들일것을.

언제나 당만 믿고 떠러온 인민, 그 누구의 동정도 지원도 없는 력사의 돌풍속에서 험이 되고 의지가 되어준 인민, 핵무기를 미친듯이 휘두르는 원수들이 감히 손을 하나 다치지 못하게 지켜온 그 인민이 뜻밖의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 혈육을 잃었다는것이 너무나 가슴아프시어 우리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국방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전략적문제들이 토의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군을



고결한 도덕의리심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전세만세 높이 받들며 오시고 수령님 교장군님께 불려주시는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수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만수대언덕을 찾는 사람들속에는 류경건설관리국 제 4려단 1대대 대원 김명희동무도 있다.

10년전 그의 가정은 새 집을 받았다.

입사증을 돌려보며 한밤을 지새우다시피 한 김명희동무의 가족들은 이룰날 향기로운 꽃다발들을 정히 안고 만수대언덕으로 올랐다.

부모들과 함께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세 집을 받은 감격을 이룬 그때부터 김명희동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른새벽에도 깊은 밤에도 만수대언덕을 찾고 또 찾았다. 처녀시절에는 물론 가정을 이루고 대흥이를 낳아 키우면서, 당의 구상을 실현해가는 수도건설자가 되어 은하과학자거리와

류경건설관리국 제 4려단 1대대 대원 김명희동무

장천거리건설에 참가하여 불꽃튀는 건설전투를 벌이면서 그는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는 길을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던 그 나날 그는 온 가정의 지성이 갖는 지원물자들과 관리도구들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위상 과학자주택지구건설에 참가하였을 때에도 그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귀하신 영상이 모셔진 유화작품들과 현지지도사적비를 찾아 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하곤 하였다.

하루도 번짐이 없이 위대한 수령님들을 뵈옵고 마음속사연을 아뢰며 충정을 다짐하는것은 그에게 있어서 어쩔수 없는 일과로 되었던것이다.

그날도 치열한 전투속에 하루 작업이 끝난 깊은 밤 전투원들의 속삭음을 들으며만 대대장 주철룡동무는 옷매무시를 정히 하는 김명희동무를 보았다. 코리리가 작아 시켰다.

《맑은 길이었어 전 힘들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마음먹고 나선이 길이 아닙니까. 그 내 마음을 아름답게 정화시키고 더욱 충직하게 가꾸어가는 길을 영원히 걸으렵니다.》

본사기자 김치곤

집은 삶의 보금자리이다.

삶의 보금자리가 귀중하기에 가정이라는 말자체도 집을 전제로 하여 생겨났을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 곳곳에 다 있는 집이지만 그에 비견 제도의 모습은 하나같지 않다.

백만장자들도 부러워 할 미려과학자거리의 멋진 살림집들에 우리의 평범한 과학자, 교육자들의 한 톨만 내지 않고 얼마전에 새로 보금자리를 뒀다.

새 집에 입사한 김책공업총합대학의 한 젊은 연구사가 떠난 격정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전에 울려온다.

《평범한 연구사에 불과한 저에게도 이렇게 희한한 고급살림집을 안겨주시니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단 말입니까. 정녕 감사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은 우리모두의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이것이 어찌 그의 심정이라 고만 하였는가.

최근년간 이 땅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창건거리살림집이며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

보금자리를 통해 본 판이한 두 현실

살림집, 조국의 북변 라선시 선봉지구의 살림집들을 비롯하여 조국땅 그 어디에 가보아도 현대적인 새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준 고마운 제도에 대한 찬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나오고있다.

또한 보금자리마다에 넘쳐나는 인민들의 기쁨넘친 모습에서 확인하는것이 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창조되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한칸짜리 살림방을 마련하자면 일만도 못하게 많은 로인을 단 한칸도 쓰지 않고 100여년 동안이나 지옥해야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엄청난 집값 때문에 오죽하면 《제 집이면 이 평생소원》이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하늘높은줄 모르고 계속 뛰어들어가는 집값때문에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은 제 집이 없이 하루하루를 눈물과 비탄속에 살아가고있다.

자본주의 나라들의 어느 한 시에서는 매일밤 수천명의 집없는 사람들이 거리와 골목들, 다리와 지하철도에서 잠을

원수님께서서는 한결의 그늘도 없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우리가 혁명을 하는 이 땅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더 높고, 더 힘차게 울릴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속에는 상처입은 자식 일수록 더욱 마음속은 어머니의 울음처럼 젖어 담겨져있다.》

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을 자기의 붉은 기폭에 소중히 품어안아 온몸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당의 진보로써 여겨졌다.

그 모습은 웅장하고 다정한 사랑과 애에 떠날려 원산육아원과 애육원이 또 하나의 아이들의 온전으로 일떠서고 우리 당이 오래 동안 아껴온 명당자리에 합각지붕을 얹은 평양양로원인 민족의 향취를 풍기며 솟아올랐다.

뜻밖의 큰물로 재난을 당한 라선시인민들이 받아안은 사랑과 온정은 또 얼마나 컸던가.

돌이켜보면 자연재해보다 더 엄혹한 전쟁이라는 재난의 난파도가 시시각각 눈앞에 밀려들던 때였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실린 긴장한 5월밤, 5월밤이 흐르던 그때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아프게 안겨온 사람들이 바로 큰물피해로 한지에 나앉은 라선시인민들일것을.

언제나 당만 믿고 떠러온 인민, 그 누구의 동정도 지원도 없는 력사의 돌풍속에서 험이 되고 의지가 되어준 인민, 핵무기를 미친듯이 휘두르는 원수들이 감히 손을 하나 다치지 못하게 지켜온 그 인민이 뜻밖의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 혈육을 잃었다는것이 너무나 가슴아프시어 우리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국방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전략적문제들이 토의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군을

원수님께서서는 한결의 그늘도 없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우리가 혁명을 하는 이 땅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더 높고, 더 힘차게 울릴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속에는 상처입은 자식 일수록 더욱 마음속은 어머니의 울음처럼 젖어 담겨져있다.》

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을 자기의 붉은 기폭에 소중히 품어안아 온몸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당의 진보로써 여겨졌다.

그 모습은 웅장하고 다정한 사랑과 애에 떠날려 원산육아원과 애육원이 또 하나의 아이들의 온전으로 일떠서고 우리 당이 오래 동안 아껴온 명당자리에 합각지붕을 얹은 평양양로원인 민족의 향취를 풍기며 솟아올랐다.

뜻밖의 큰물로 재난을 당한 라선시인민들이 받아안은 사랑과 온정은 또 얼마나 컸던가.

돌이켜보면 자연재해보다 더 엄혹한 전쟁이라는 재난의 난파도가 시시각각 눈앞에 밀려들던 때였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실린 긴장한 5월밤, 5월밤이 흐르던 그때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아프게 안겨온 사람들이 바로 큰물피해로 한지에 나앉은 라선시인민들일것을.

언제나 당만 믿고 떠러온 인민, 그 누구의 동정도 지원도 없는 력사의 돌풍속에서 험이 되고 의지가 되어준 인민, 핵무기를 미친듯이 휘두르는 원수들이 감히 손을 하나 다치지 못하게 지켜온 그 인민이 뜻밖의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 혈육을 잃었다는것이 너무나 가슴아프시어 우리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국방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전략적문제들이 토의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군을

원수님께서서는 한결의 그늘도 없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우리가 혁명을 하는 이 땅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더 높고, 더 힘차게 울릴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속에는 상처입은 자식 일수록 더욱 마음속은 어머니의 울음처럼 젖어 담겨져있다.》

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을 자기의 붉은 기폭에 소중히 품어안아 온몸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당의 진보로써 여겨졌다.

그 모습은 웅장하고 다정한 사랑과 애에 떠날려 원산육아원과 애육원이 또 하나의 아이들의 온전으로 일떠서고 우리 당이 오래 동안 아껴온 명당자리에 합각지붕을 얹은 평양양로원인 민족의 향취를 풍기며 솟아올랐다.

뜻밖의 큰물로 재난을 당한 라선시인민들이 받아안은 사랑과 온정은 또 얼마나 컸던가.

돌이켜보면 자연재해보다 더 엄혹한 전쟁이라는 재난의 난파도가 시시각각 눈앞에 밀려들던 때였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실린 긴장한 5월밤, 5월밤이 흐르던 그때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아프게 안겨온 사람들이 바로 큰물피해로 한지에 나앉은 라선시인민들일것을.

언제나 당만 믿고 떠러온 인민, 그 누구의 동정도 지원도 없는 력사의 돌풍속에서 험이 되고 의지가 되어준 인민, 핵무기를 미친듯이 휘두르는 원수들이 감히 손을 하나 다치지 못하게 지켜온 그 인민이 뜻밖의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 혈육을 잃었다는것이 너무나 가슴아프시어 우리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국방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전략적문제들이 토의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군을

원수님께서서는 한결의 그늘도 없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우리가 혁명을 하는 이 땅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더 높고, 더 힘차게 울릴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속에는 상처입은 자식 일수록 더욱 마음속은 어머니의 울음처럼 젖어 담겨져있다.》

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을 자기의 붉은 기폭에 소중히 품어안아 온몸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당의 진보로써 여겨졌다.

그 모습은 웅장하고 다정한 사랑과 애에 떠날려 원산육아원과 애육원이 또 하나의 아이들의 온전으로 일떠서고 우리 당이 오래 동안 아껴온 명당자리에 합각지붕을 얹은 평양양로원인 민족의 향취를 풍기며 솟아올랐다.

뜻밖의 큰물로 재난을 당한 라선시인민들이 받아안은 사랑과 온정은 또 얼마나 컸던가.

돌이켜보면 자연재해보다 더 엄혹한 전쟁이라는 재난의 난파도가 시시각각 눈앞에 밀려들던 때였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실린 긴장한 5월밤, 5월밤이 흐르던 그때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아프게 안겨온 사람들이 바로 큰물피해로 한지에 나앉은 라선시인민들일것을.

언제나 당만 믿고 떠러온 인민, 그 누구의 동정도 지원도 없는 력사의 돌풍속에서 험이 되고 의지가 되어준 인민, 핵무기를 미친듯이 휘두르는 원수들이 감히 손을 하나 다치지 못하게 지켜온 그 인민이 뜻밖의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 혈육을 잃었다는것이 너무나 가슴아프시어 우리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국방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전략적문제들이 토의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군을



인민들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갖가지 강병이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창조적지혜를 합쳐간다. —평양강병이가공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계급투쟁의 피흘림과 진리를 배에 새기자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크고작은 길들이 있겠는가. 일터로 가는 길, 학교로 가는 길, 명성지로 가는 길...

다름없는 그 무수한 길들은 어느것이냐 보람차고 행복부담된 길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온을 수산리로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 원한과 복수를 이 가슴 불타게 하는 길로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착취와 압박에 대하여 말로만 듣고 전쟁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우리 혁명대오의 주력을 이루고있는 현실은 계급교양이 도수를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수산평은 오늘도 고발한다

산중과 물이 맑아 그 이름도 수산리라 지었다는 이곳은 유구한 력사를 보여주는 강서고분이라는 삼포리가 옆에 있고 유명한 강서약수가 솟아져나오는 약수가 지척에 있어 옛적부터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고장이였다.

하지만 오늘은 이 고장에 산천경계를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은 없다. 수산평에 새겨진 원한의 상처를 뼈에 새기고 원수들을 찬배로 복수할 의지를 버리기 위해 사람들은 이곳으로 몰려쳐온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지로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을 위하여 계급적원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른 이 길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끝없이

피 배 인 떡 들

내장이 쏟아나와 숨지게 한 인간배정들을 어찌 용서할수 있랴.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분노로 하여 피가 거꾸로 솟았다. 원수들은 무엇을 그렇게 못마땅해하였는가. 배방의 강격으로 설배이던 내지, 어머니수령님 주신 땅에서 지는 흰쌀로 떡을 지어 수산마을사람들이 먹었던 떡을 지어 쌀과 아울러 삶은 떡... 적들은 그것이 싫었고 그것을 배앗아가려 했다.

그래서 인민의 행복이 없혀

길에 대한 생각

피로써 갈아야 한다는 계급투쟁의 철리를 가슴마다에 단장한시켜주는 사상의 병기창으로 되었다. 그러나 수산리로의 길, 그것은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을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키우는 길, 정신력의 강자들로 키우는 계급교양대학의 교정길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리정호

배에 새기자

지던 떡들이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공기로 되었다. 행복의 떡들이 원한의 떡들로 되었다!

그렇다. 행복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의 행복에 이를 때는 원수들이 있는 한 우리는 계급의 장검을 더욱 예리하게 버려야 하며 적들과는 끝까지 싸워이겨야 한다.

피배인 떡들은 력사의 피어넘어 체험을 말없이 들려주는 우리 심장속에 무겁게 들어앉았다.

본사기자 리정호

제도전복을 노린 위험천만한 <인권> 모락소동

미국이 반공화국<인권>모락소동에 끈질기게 매달리고있다. 날이 갈수록 그 도수는 더욱 높아지고있다. 날조된 자료들로 그 무슨 <결의안>을 만들어 유엔총회에서 통과시켜 있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제화, 정치화하려 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우리의 <인권문제>를 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부터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마치도 <인권문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떠들며 그것을 유엔무대에까지 끌고가 여론화하려왔다. 하지만 그 모든것이 위와외 사기협잡, 악의에 찬 비방중상회의 일판된것으로 하여 공정한 국제사회의 옹양한 비난을 받았다. 이것은 미국의 반공화국<인권>모락소동이 친만반당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참다운 인권보장을 위한 모든 법률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그를 실행에 구현하고있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그처럼 악랄한 미국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인간으로서 누릴수 있는 모든 권리와 참된 삶을 확보하고 보장해주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은 세계를 경탄시키고있다. 미당국자들에게도 눈과 귀가 있는 이상 이것을 모를리 없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시키려 하고있다. 목적은 뎨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의 영성에 먹칠을 하고 나중에는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군사적력으로 말살하자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의 의지도 없는 <인권허물>을 만들어내어 비방중상하며 그것을 구실로 내정에 간섭하고 합법적인 정권을 전복하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그 대상은 반제국주의적 나라들과 전락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있는 나라들, 대미추종에서 벗어나려는 나라들이다.

미국은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전설하던 동유럽나라들을 붕괴시키는데 이 수법을 써먹었다. 그들은 마치도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있다는 것처럼 사실을 외곡하고 헐뜯었다. 지어 사회주의나라들에서 무질서를 막고 사회적인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을 <인권침해>로, <민주주의>탄압으로 곱고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여론화하고 국제적인 압력을 들이쳤다. <인권옹호>를 운운하며 인민의 원수들에게 제국적인 지원을 주었다. 결국 이 나라들에서는 사회정치적인정이 깨져지고 분쟁과 소요의 환무장이 펼쳐졌으며 제도 파괴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최근년간 중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이 구도의 정치혼란과 테러와 북북의 악순환속에 빠져들것도 미국이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제도전복을 위한 구실로 악용해온 결과이다.

몇해전부터 미국은 중동지역을 저들의 손에 틀어쥐기 위하여 튀니지, 리비아, 예멘 등 여러 나라들에서 불순세력들을 부추겨 반정부조직을 일으키고 하고는 그들을 <민주주의>세력으로 둔갑시키고 무기와 자금까지 대주었다. 사태수습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자 <인권유린>으로 곱고들며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압력을 가하고 내정에 간섭해나갔다. 이것을 막아지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민족 및 종족간, 교파들사이에 투열적인 분열이 일어났으며 부정부추의적인 혼란과 무질서의 소용돌이속에 말려들게 되었다. 출산 사망률이 목숨이러다 부지하기 위해 유산으로 피난의 길에 올랐다. 말조도 <인권조제대동>을 방불케 하는 피난민들이 그 초래되었다. 어떤 나라는 구도의 정치혼란속에 빠져 국가존재자체를 유지하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떠드는 <인권>소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후파가 얼마나 파국적인가 하는것을 웅

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은 중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써먹은 수법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려 하고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지난 시기와는 달리 우리에게 <인권문제>가 있다는것을 리명할 <증인>들을 내세우고 그들이 붙어대는 잡소리들을 <자료>로 내들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증인>이라는것들이 하나같이 제 고향에서 범죄를 일삼다가 제 친형제들에게서까지 버림받고 도주한 망명자, 인간추몰들이라는것이다. 이자들은 구자소리를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만분의 돈이라도 더 벌어들이고 미국이 바라는것이라면 없는 사실도 꾸며내며 아무 소리를 마땅 쳤다고있다.

이들은 바로 이것을 놓고 마치도 우리에게 <인권문제>가 존재하는것처럼 외국 언론을 내들리며 국제무대에 소악행들 돌구어대고있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억지를 쓰고있다.

지금 미국은 우리에게 <인권개신>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없다고 시비질을 하는가 하면 유엔에서 국제형사재판소로 꾸미고 있는 심지 자국적인 망명까지 늘어놓고있다. 어떻게 하나 우리 공화국을 <인권범죄자>로 몰아 <인권옹호>의 미명하에 군사적개입을 할수 있는 명분을 얻자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파장하여 요란스럽게 떠들다가 그것을 구실로 방대한 무력을 들이밀어 합법적인 정권을 전복하는것은 미국의 수법일수록의 하나이다.

미국이 <인권옹호>를 떠들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그네이더와 버마를 침공하고 유고슬라비아전쟁을 일으킨것이나 그 대표적실례이다. 세 세계가 들어와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그 대상으로 되었다. 가깝게는 <인권옹호>의 구실밑에 감행된 미국의 군사적간섭으로 리비아가 만신창이 되었다. 이것은

미국이 <인권>소동의 뒤에는 반드시 침략적인 군사적개입이 뒤따른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인권문제>를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더욱 무모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유엔무대에 나서기만 하면 우리의 <인권문제>를 꺼들며 그것을 국제적인 논의거리로 만들려 하고있다.

<북조선선전법>실현을 위해 막대한 국가예산을 쏟아부었고, 많은 자금이 반공화국<인권>모락소동들을 후원하는데 들려지고있다.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기사가 있을 때마다 반공화국<인권결의안>이라는것을 만들어 유엔에 제출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마치도 미국이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제화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임의의 시각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감행할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우리를 노린 미국의 <인권>소동은 일시적인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계적이며 병적인 거부감으로부터 나오는 장기적인 전략에 따른것이다.

인권이냐 국권이다. 세상에 저들밖에 없는것처럼 놀아내는 미국이 <인권문제>를 구실로 우리를 먹어먹고 미쳐달려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우리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참다운 인권을 지키자면 뉘나뉘나해도 힘이 강해야 한다. 힘이 없으면 우리의 인권을 부정하는자들과 맞서싸울수 없으며 진정한 인권을 수호할수 없다. 이것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비참한 참상이 보여주는 빛의 진리이다.

미국이 반공화국<인권>소동의 도수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전쟁억력은 더욱 강화될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필자는 천만만 정당하며 절대로 말라지지 않을것이다.

리 학 남

국제해사기구총회 제29차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 연설

국제해사기구총회 제29차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인 전기철 국가해사감독국 국장이 11월 24일 연설하였다.

그는 본 총회가 가지는 의의와 총회기간 기구사적국과 성원국들의 노력에 의하여 해상안전 및 환경보호분야에서 일련의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하여서와 기구가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높여나가는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 한 영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국제해사기구총회 제29차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인 전기철 국가해사감독국 국장이 11월 24일 연설하였다.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필수법규수정문들에 맞게 배안전법, 바다오염방지법, 선원법과 같은 법규들이 수정보충되고 시행을 위한 제도적장치가 완비되었다.

기구협약의 효과적인 리행과 해사교육 및 양성을 주제로 한 세계해사의 날 기념행사를 비롯한 여러 날기들을 통하여 배운 영기관들과 선원들속에서 준범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활발히 벌어졌다.

해상탐색구조분야에서는 국가해상탐색구조계획에 따라 중앙해상구조조정소에 탐색구조조정지원체계를 도입하여 나라의 동시해안에 전개된 연안무선대들과 지역별소들의 현지구조조정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정보화, 최량화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에서는 해상환경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이 돌려지고있는 가운데 국가배기물오염비상대응계획에 따르는 국가적 및 지역별배기물오염비상대응훈련을 조직진행하고 이 과정에 비상대응계획과 체계적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들이 달성되었다.

우리의 이러한 활동들은 깨끗한 대양에서의 해상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기여하는것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국제해사기구성원국들과의 친선협력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해상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기여할것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상태를 끌장내기 위한 길에 나서라

주마에 상주하고있는 칠레공산당대표부가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우리 공화국의 제안을 지지하여 11월 2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조선전쟁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명정대한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미국이 용단을 내려야 할

필요성 있다고 큰 힘을 넣고있다.

참다운 인권을 지키자면 뉘나뉘나해도 힘이 강해야 한다. 힘이 없으면 우리의 인권을 부정하는자들과 맞서싸울수 없으며 진정한 인권을 수호할수 없다. 이것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비참한 참상이 보여주는 빛의 진리이다.

미국이 반공화국<인권>소동의 도수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전쟁억력은 더욱 강화될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필자는 천만만 정당하며 절대로 말라지지 않을것이다.

미국이 용단을 내려야 할 필요성 있다고 큰 힘을 넣고있다.

참다운 인권을 지키자면 뉘나뉘나해도 힘이 강해야 한다. 힘이 없으면 우리의 인권을 부정하는자들과 맞서싸울수 없으며 진정한 인권을 수호할수 없다. 이것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비참한 참상이 보여주는 빛의 진리이다.

미국이 반공화국<인권>소동의 도수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전쟁억력은 더욱 강화될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필자는 천만만 정당하며 절대로 말라지지 않을것이다.

미국이 용단을 내려야 할 필요성 있다고 큰 힘을 넣고있다.

참다운 인권을 지키자면 뉘나뉘나해도 힘이 강해야 한다. 힘이 없으면 우리의 인권을 부정하는자들과 맞서싸울수 없으며 진정한 인권을 수호할수 없다. 이것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비참한 참상이 보여주는 빛의 진리이다.

미국이 반공화국<인권>소동의 도수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전쟁억력은 더욱 강화될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필자는 천만만 정당하며 절대로 말라지지 않을것이다.

제2차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대회 진행, 조미평화협정체결촉구선언문 채택

[평양 12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제2차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대회가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도이월란도의 베를린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우리 나라 대표단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로씨야, 중국, 도이월란도, 영국, 단마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미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개최사에 이어 동북아시아의 세력구도와 안보문제, 미국의 정책, 미국-동북아시아연락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선반도안정장착과 최근정세 등 주제의 토론들이 있었다.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중지하고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이라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그들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오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간섭에 시달리고있는 유혈을 비탄해워야 할 본보기라고 찬양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우리 공화국이 조국통일과 조국건설의 평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해나갈 필요성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여론화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이다.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중지하고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이라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그들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오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간섭에 시달리고있는 유혈을 비탄해워야 할 본보기라고 찬양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우리 공화국이 조국통일과 조국건설의 평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해나갈 필요성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여론화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이다.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중지하고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이라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그들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오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간섭에 시달리고있는 유혈을 비탄해워야 할 본보기라고 찬양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우리 공화국이 조국통일과 조국건설의 평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해나갈 필요성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여론화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이다.

미국이 용단을 내려야 할 필요성 있다고 큰 힘을 넣고있다.

참다운 인권을 지키자면 뉘나뉘나해도 힘이 강해야 한다. 힘이 없으면 우리의 인권을 부정하는자들과 맞서싸울수 없으며 진정한 인권을 수호할수 없다. 이것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비참한 참상이 보여주는 빛의 진리이다.

미국이 반공화국<인권>소동의 도수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전쟁억력은 더욱 강화될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필자는 천만만 정당하며 절대로 말라지지 않을것이다.

파쇼폭압으로 얻을것이란 민심의 더 큰 항거와 비참한 파멸밖에 없다

조선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최근 남조선보수집권패당은 날로 격렬하게 벌어지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반(정부투쟁을 가토막 내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해 미쳐달려고있다.

지금 남조선보수집권패당은 얼마전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집회를 주도하였다는 당시 않은 구실밑에 민주로총 위원장과 핵심진료자들은 물론 민주로총본부와 그 산하 로조단파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검거선봉을 일으키고있는가 하면 이미 체포수속한 민주로총 인사들에게 중형을 들뜨우는 등 파쇼폭압에 그 어느때보다 광분하고있다.

파쇼폭압으로 얻을것이란 민심의 더 큰 항거와 비참한 파멸밖에 없다

조선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최근 남조선보수집권패당은 날로 격렬하게 벌어지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반(정부투쟁을 가토막 내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해 미쳐달려고있다.

지금 남조선보수집권패당은 얼마전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집회를 주도하였다는 당시 않은 구실밑에 민주로총 위원장과 핵심진료자들은 물론 민주로총본부와 그 산하 로조단파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검거선봉을 일으키고있는가 하면 이미 체포수속한 민주로총 인사들에게 중형을 들뜨우는 등 파쇼폭압에 그 어느때보다 광분하고있다.

파쇼폭압으로 얻을것이란 민심의 더 큰 항거와 비참한 파멸밖에 없다

조선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최근 남조선보수집권패당은 날로 격렬하게 벌어지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반(정부투쟁을 가토막 내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해 미쳐달려고있다.

지금 남조선보수집권패당은 얼마전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집회를 주도하였다는 당시 않은 구실밑에 민주로총 위원장과 핵심진료자들은 물론 민주로총본부와 그 산하 로조단파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검거선봉을 일으키고있는가 하면 이미 체포수속한 민주로총 인사들에게 중형을 들뜨우는 등 파쇼폭압에 그 어느때보다 광분하고있다.

남조선집권자처가 나서서 투쟁에 걸친 각계층 인민들을 (이슬람교국가)의 테러분자로 비추어내려 (애후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라. >고 고이였으며 여기에 <내부리당>것들을 맞장구 치며 보수민주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새로운 파쇼악법인 (테러방지법)과 <북편착용금지법>이라는것을 조작하려고 말하고있다.

특히 남조선보수패당은 당국의 파쇼폭압에 맞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선포하고 강행하려는 각계층 인민들을 군사독재(경건정치)의 (백골단) 같은 <현장정치전담반>을 투입하여 무차별적으로 탄압하

남조선집권자처가 나서서 투쟁에 걸친 각계층 인민들을 (이슬람교국가)의 테러분자로 비추어내려 (애후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라. >고 고이였으며 여기에 <내부리당>것들을 맞장구 치며 보수민주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새로운 파쇼악법인 (테러방지법)과 <북편착용금지법>이라는것을 조작하려고 말하고있다.

특히 남조선보수패당은 당국의 파쇼폭압에 맞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선포하고 강행하려는 각계층 인민들을 군사독재(경건정치)의 (백골단) 같은 <현장정치전담반>을 투입하여 무차별적으로 탄압하

남조선집권자처가 나서서 투쟁에 걸친 각계층 인민들을 (이슬람교국가)의 테러분자로 비추어내려 (애후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라. >고 고이였으며 여기에 <내부리당>것들을 맞장구 치며 보수민주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새로운 파쇼악법인 (테러방지법)과 <북편착용금지법>이라는것을 조작하려고 말하고있다.

특히 남조선보수패당은 당국의 파쇼폭압에 맞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선포하고 강행하려는 각계층 인민들을 군사독재(경건정치)의 (백골단) 같은 <현장정치전담반>을 투입하여 무차별적으로 탄압하

세계적으로 장애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자 수는 세계인구의 15%나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그들의 권리보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회적문제들이 제기되고있다.

유엔은 1976년에 유엔은 유엔총회 제31차회의에서 1981년을 <국제장애자의 해>로 정하고 장애자들이 사회적활과 발전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조건을 누리며 사회경제발전의 혜택을 똑같이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데 대한 조지를 취하였다.

그러나 1981년 한 해동안에 진행된 <국제장애자의 해>는 동종과 자신의 방법만으로는 장애자들의 사회적평등을 실현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기였다. 이로부터 유엔은 1982년 12월 3일 유엔총회 제37차회의에서 <장애자들과 관련한 세계행동계획>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1983년부터 1992년까지의 10년간을 <장애자들을 위한 유엔 10년대>로 선포하였다. 이 기간 세계적으로 장애자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애의 원인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1992

세계적으로 장애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자 수는 세계인구의 15%나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그들의 권리보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회적문제들이 제기되고있다.

유엔은 1976년에 유엔은 유엔총회 제31차회의에서 1981년을 <국제장애자의 해>로 정하고 장애자들이 사회적활과 발전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조건을 누리며 사회경제발전의 혜택을 똑같이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데 대한 조지를 취하였다.

그러나 1981년 한 해동안에 진행된 <국제장애자의 해>는 동종과 자신의 방법만으로는 장애자들의 사회적평등을 실현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기였다. 이로부터 유엔은 1982년 12월 3일 유엔총회 제37차회의에서 <장애자들과 관련한 세계행동계획>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1983년부터 1992년까지의 10년간을 <장애자들을 위한 유엔 10년대>로 선포하였다. 이 기간 세계적으로 장애자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애의 원인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1992

세계적으로 장애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자 수는 세계인구의 15%나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그들의 권리보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회적문제들이 제기되고있다.

유엔은 1976년에 유엔은 유엔총회 제31차회의에서 1981년을 <국제장애자의 해>로 정하고 장애자들이 사회적활과 발전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조건을 누리며 사회경제발전의 혜택을 똑같이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데 대한 조지를 취하였다.

그러나 1981년 한 해동안에 진행된 <국제장애자의 해>는 동종과 자신의 방법만으로는 장애자들의 사회적평등을 실현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기였다. 이로부터 유엔은 1982년 12월 3일 유엔총회 제37차회의에서 <장애자들과 관련한 세계행동계획>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1983년부터 1992년까지의 10년간을 <장애자들을 위한 유엔 10년대>로 선포하였다. 이 기간 세계적으로 장애자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애의 원인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1992

프랑스에서의 연속테러사건-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일마친 무장투쟁이 프랑스의 베리에서 한 국가에 뛰어들어 100여명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프랑스의 도이월란도사이의 추경기가 진행되던 경기장에서 여학생들의 자폭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런가하면 자동차보충으로 무장한 여학생의 범인들이 시내에 있는 식당등에서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이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위신들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연속테러사건을 놓고 9. 11사건과 유사하다고 하고있다. 그만큼 이번 일어난 테러사건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매우 크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시기에도 여러차례의 테러공격사건이 일어났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1월 7일 북편을 한 무장투쟁자들이 베리에서 한 주간(스탈리 에브도) 분사에 침입하여 사람들을 목표로 마구 사격을 가한 결과 10여명이 사상되었다.

새해부터부터 발생한 테러공격사건으로 하여 이 나라의 분위기는 어수선하였다. 정부가 사태수습에 나섰다. 사람들속에서 떠도는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는 좀처럼 가시지지 않았다. 그런데 장에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 사람들의 관심이 안정되게 하였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테러공격사건이 연발하여 모든것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일마친 무장투쟁이 프랑스의 베리에서 한 국가에 뛰어들어 100여명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프랑스의 도이월란도사이의 추경기가 진행되던 경기장에서 여학생들의 자폭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런가하면 자동차보충으로 무장한 여학생의 범인들이 시내에 있는 식당등에서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이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위신들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연속테러사건을 놓고 9. 11사건과 유사하다고 하고있다. 그만큼 이번 일어난 테러사건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매우 크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시기에도 여러차례의 테러공격사건이 일어났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1월 7일 북편을 한 무장투쟁자들이 베리에서 한 주간(스탈리 에브도) 분사에 침입하여 사람들을 목표로 마구 사격을 가한 결과 10여명이 사상되었다.

새해부터부터 발생한 테러공격사건으로 하여 이 나라의 분위기는 어수선하였다. 정부가 사태수습에 나섰다. 사람들속에서 떠도는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는 좀처럼 가시지지 않았다. 그런데 장에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 사람들의 관심이 안정되게 하였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테러공격사건이 연발하여 모든것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일마친 무장투쟁이 프랑스의 베리에서 한 국가에 뛰어들어 100여명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프랑스의 도이월란도사이의 추경기가 진행되던 경기장에서 여학생들의 자폭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런가하면 자동차보충으로 무장한 여학생의 범인들이 시내에 있는 식당등에서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이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위신들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연속테러사건을 놓고 9. 11사건과 유사하다고 하고있다. 그만큼 이번 일어난 테러사건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매우 크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시기에도 여러차례의 테러공격사건이 일어났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1월 7일 북편을 한 무장투쟁자들이 베리에서 한 주간(스탈리 에브도) 분사에 침입하여 사람들을 목표로 마구 사격을 가한 결과 10여명이 사상되었다.

새해부터부터 발생한 테러공격사건으로 하여 이 나라의 분위기는 어수선하였다. 정부가 사태수습에 나섰다. 사람들속에서 떠도는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는 좀처럼 가시지지 않았다. 그런데 장에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 사람들의 관심이 안정되게 하였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테러공격사건이 연발하여 모든것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일마친 무장투쟁이 프랑스의 베리에서 한 국가에 뛰어들어 100여명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프랑스의 도이월란도사이의 추경기가 진행되던 경기장에서 여학생들의 자폭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런가하면 자동차보충으로 무장한 여학생의 범인들이 시내에 있는 식당등에서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이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위신들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연속테러사건을 놓고 9. 11사건과 유사하다고 하고있다. 그만큼 이번 일어난 테러사건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매우 크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시기에도 여러차례의 테러공격사건이 일어났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1월 7일 북편을 한 무장투쟁자들이 베리에서 한 주간(스탈리 에브도) 분사에 침입하여 사람들을 목표로 마구 사격을 가한 결과 10여명이 사상되었다.

새해부터부터 발생한 테러공격사건으로 하여 이 나라의 분위기는 어수선하였다. 정부가 사태수습에 나섰다. 사람들속에서 떠도는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는 좀처럼 가시지지 않았다. 그런데 장에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 사람들의 관심이 안정되게 하였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테러공격사건이 연발하여 모든것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갔다.